

광주시, 전남대·조선대 ‘글로벌대학 30’ 선정 총력 지원

각 대학별 전담반 가동...밀착지원 박차 AI융합·메디헬스케어 실행계획서 협력

광주시가 전남대학교(단독), 조선대학교-조선간호대학교(통합)의 ‘글로벌대학30’ 최종 선정을 위해 전담반을 가동하는 등 총력 지원에 나선다.

광주시는 지난 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글로벌컬대학 본지정 실무추진단(TF) 전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7일 전남대와 조선대-조선간호대가 교육부 공모 ‘2025 글로벌대학 예비

지정 대학’에 선정됨에 따라 8월 초까지 제출해야 하는 실행계획서 작성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글로벌대학 본지정 TF’는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전남대와 조선대(조선간호대) 관계자, 광주시 15개 연계부서, 광주테크노파크, 광주연구원 등 관련기관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는 이병철 기획조정실장(문화경제부시장 직무대행), 조성준 전남대 기획처장, 박종락 조선대 기획처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지자체 발전 전략, 행·재정적 지원, 지역산업 연계 등이 포함된 실행계획서 공동 수립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전남대와 조선대가 앞서 교육부에 제출한 예비지정 신청서인 혁신기획서에 대한 설명과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전남대는 ‘문화·인문 소양을 바탕으로 인간 중심 인공지능(AI) 인재 양성’을 비전으로 한 혁신기획안을 통해 AI 융합 인재 2만명 양성, AI 융합 창업기업 200곳 육성, 유학생 5천명 유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선대는 ‘웰에이징 아시아 No.1 대학’을 비전으로 한 혁신기획안을 통해 웰에이징 특화 인재 1만명 양성, 기업 유치·창업 200곳, 글로벌 인재 5천명 양성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AI·반도체·메디헬스케어 등 지역

대표 산업과 연계해 대학의 핵심 과제를 분석, 대학과 공동으로 실행계획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밀착 지원을 위해 전남대와 조선대 전담반을 운영, 인재 양성·연구 개발·산학 협력 등 구체적이고 지속가능한 과제를 실행계획서에 담아 완성도를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사회 인식 제고와 성과 확산을 위한 대외 홍보에도 적극 나선다.

글로벌대학 예비지정 대학들은 8월 초까지 실행계획서를 수립해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글로벌대학위원회)는 서면 및 대면 심사를 통해 오는 9월 최종 10개 이내 대학을 글로벌

대학으로 지정한다.

조성준 전남대 기획처장은 “인간 중심 AI 융합 인재 양성을 목표로 광주시와 긴밀히 협력해 실행계획서를 충실히 작성하겠다”며 “지역과 대학의 발전을 위해 글로벌대학에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락 조선대 기획처장은 “초고령화 시대에 웰에이징이라는 특화 전략으로 광주시와 협력해 실행계획서를 작성하겠다”며 “글로벌대학 본지정에 차질없이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병철 기획조정실장은 “양 대학 모두 본지정에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변은진 기자



차 없는 금남로서 ‘오징어게임’ ‘금남로 차 없는 거리’ 건자영 행사가 지난 7일 오후 광주 금남로 일대에서 열렸다.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 ‘오징어 게임-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 참가한 시민들이 게임을 즐기고 있다. /김애리 기자·조영권 인턴 기자

폭염 선제 대응...인명·재산 피해 최소화

도, 취약층 맞춤형·인프라 확대 드론 순찰·영향예보 강화 등 추진

전남도가 오는 9월30일까지 폭염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한 2025년 폭염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여름은 예년보다 기온이 높고 폭염이 더 일찍 시작될 것으로 예보됐다. 폭염특보 발표 시점도 2010년대에는 7월이었으나 최근엔 6월로 앞당겨지는 추세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폭염 대응 체계를 전방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기존 총괄안전관리반, 민감 대상 지원반, 시설안전관리반에 홍보·행

사 관리반을 추가하는 등 폭염 대응 TF의 분야별 전담 기능을 보강해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지난해 고령에서 큰 호응을 얻었던 드론 순찰도 나주, 화순, 영암 등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기상청과 협업해 ‘폭염 영향예보 직접 전달 서비스’도 전 시·군으로 확대했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담양·장성·곡성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했다. 가족이 거주하는 지역에 폭염 주의 단계 이상이면 카카오톡 앱 메시지를 제공, 고령자가 많은 전남에서 부모님의 건강을 챙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비스는 15일까지 기상청 기상행정 누리집(www.kma.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농업인, 현장 근로자, 취약계층 등 3대 폭염

취약계층을 14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맞춤형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재난안전도우미와 함께 민감 대상별 행동 요령을 안내하고 폭염특보 발령 시 예찰 활동도 강화한다.

무더위쉼터를 확대 운영해 도민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그늘막, 안개 분사시설 등 폭염 저감시설도 올해 76개소를 신규 설치하는 등 지속확충할 방침이다.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분야별 대응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주요 사업은 ▲이상수온대응지원 사업 등 수산 분야 12억원 ▲가축폭염피해 예방 시설 지원 등 축산 분야 66억원 ▲원예 재해예방 시설 지원 등 농업 분야 47억원 ▲도시바람길소 조성 등 산림 분야 372억원 등이다.

/양시원 기자

제2회 여순사건 평화문학상 전국 공모

아동문학·시·소설 8월26일까지 접수

전남도는 8월 “여수·순천 10·19사건의 아픔을 문학적으로 치유하고 역사적 진실을 알리기 위해 제2회 여수·순천 10·19 평화문학상을 8월26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아동문학 부문(동시·동화)을 신설해 시·소설과 함께 총 3개 부문으로 확대한다.

공모는 (재)전남도문화재단이 주관한다. 여순사건을 배경으로 진실과 평화, 인권, 해원, 상생의 가치를 문학적으로 구현하는 미발표 순수 창작물이 대상이다. 지역·연령 등 자격 제한은 없다.

시는 5편, 소설은 200자 원고지 80매 이상 200매 이내의 중·단편, 아동문학의 경우 동시 5편 이상 10편 이내 또는 동화 200자 원고지 30매 내외 분량으로 응모하면 된다.

상금은 시 분야 최우수 1명 1천만원, 우수 2명 각 500만원, 소설 분야 최우수 2천만원 1명, 우수 2명 각 500만원이다.

아동문학 분야 최우수 1명 1천만원, 우수 2명 각 5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당선작은 작품집으로 발간될 예정이다.

응모는 8월26일 오후 6시 도착분까지 유효하다. 원고는 한글(HWP) 파일을 이메일(peace1019@jncf.or.kr)로 제출해야 한다.

/양시원 기자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사전예매 ‘18% 할인’

성인 1만3천원·청소년 6천원

오는 8월30일 개막하는 ‘2025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관람권 사전예매가 시작됐다.

‘2025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8월30일부터 11월2일까지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등 광주시 일원에서 개최된다.

“너라는 세계, 디자인은 어떻게 인간을 끌어안는가”를 주제로 열리며 디자인을 통해 인간의 다양성과 공존을 조망하는 포용디자인의 미래를 탐색한다.

올해 디자인비엔날레는 본전시, 국제심포지엄, 특별프로젝트, 72시간 디자인챌린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디자인의 사회적 역할과 영향력을 조명하고 일상 속 배려와 연결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전시 콘텐츠로 꾸며진다.

사전예매는 인터파크를 통해 가능하며 예매자에게는 입장료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또 단체 방문객과 청소년을 위한 특별할인을 마련, 교육 현장과 가족 단위 관람객의 참여를 유도한다.

관람 요금은 성인 기준 현장 판매가로 1만6천원이며 사전예매 시 18% 할인된 1만3천원이다. 청소년과 어린이는 사전예매 시 각각 6천원, 3천원이다.

김성배 문화체육실장은 “디자인비엔날레를 통해 관람객들이 타인과의 차이를 이해하고 공존의 방식을 디자인 속에서 발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변은진 기자



다양한 실력이 미래다
다시, 교육의 본질로

미래를 함께 여는
포용적 교육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를 위한

2025 학교폭력 예방 토크 콘서트

일시 2025. 6. 19.(목) 14:00~16:00 장소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 대강당 대상 교원 및 교육전문직, 학부모, 일반 시민 등

1부 강연 : 표창원 소장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및 권한 강화’

2부 토크 콘서트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SPO 제도 활성화 방안’

진행 김의성 변호사

참여자 표창원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 소장 김민주 광주경찰청 청소년보호계 계장 김용원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장학사 이수현 학부모 패트돌맘 광주지부 장금만 월봉중학교 교장

표창원 소장

참석신청하기

주최 광주광역시교육청

주관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문의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 062-650-2079

CMYK